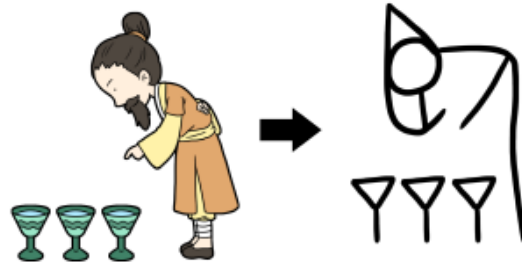


3(2)
-
131

회의문자 ①



臨

임할 림

臨자는 '임하다'나 '대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臨자는 臣(신하 신)자와 品(물건 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금문에 나온 臨자를 보면 허리를 굽혀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과 세 개의 술잔이 卣 그려져 있었다. 왜 바닥에 술잔이 놓여있는지 또 이것을 왜 내려다보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臨자에 '임하다'나 '공격하다'라는 뜻이 있는 것을 보면 전쟁에 임하기 전에 병사들에게 나누어주던 술잔을 그린 것일 수도 있다.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가는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술을 마시게 했던 행위는 근대까지도 있었던 일이다. 그러니 臨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의미로 볼 때는 이러한 추측도 가능해 보인다.

臨

금문

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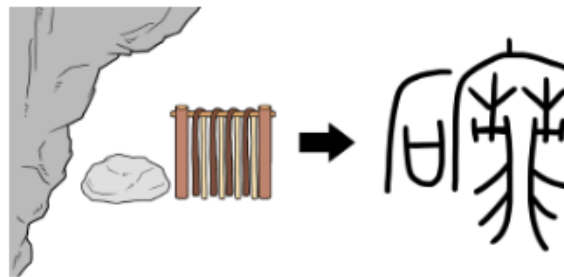
소전

臨

해서

3(2)
-
132

회의문자 ①



磨

갈 마

磨자는 '갈다'나 '닦다', '문지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磨자는 石(돌 석)자와 麻(삼 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麻자는 삼베옷의 원료인 '삼'을 그늘에 말리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삼을 수확하면 물에 찌낸 후에 선선한 곳에 말렸다가 두드리 실을 얻는다. 磨자는 바로 그러한 과정을 표현한 글자로 마를 두드리던 돌과 마를 함께 그려 "돌을 문지르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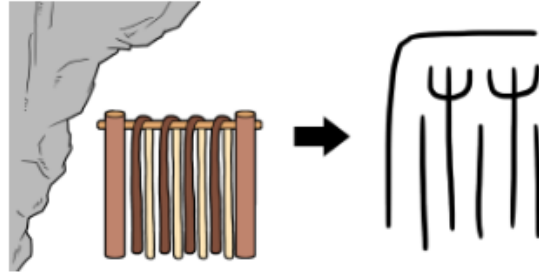
소전

磨

해서

3(2)
-
133

회의문자 ①



麻

삼 마(·)

麻자는 삼베옷의 원료인 '마'를 뜻하는 글자이다. 麻자에는 삼 겹질로 실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그려져 있다. 삼에서 실을 얻기 위해서는 마를 수확한 후에 물에 찌내야 하는데, 다 찌진 마는 바람이 부는 선선한 곳에 말린다. 麻자는 삶은 마를 선선한 곳에 널어놓은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러니 麻자에 쓰인 广(집 엄)자는 뜻과는 관계없이 그늘이 진 곳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마의 잎과 꽃에는 감각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성분이 있다. 그래서 예로부터 마는 마취제의 일종으로 쓰이기도 했으며 지금도 항생물질이나 진통제로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麻자는 '삼베'뿐만 아니라 '마비'나 '마취'라는 뜻도 함께 갖게 되었다.

麻

금문

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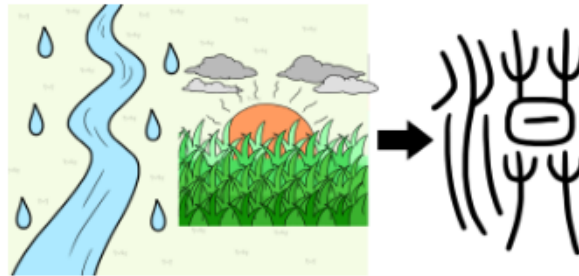
소전

麻

해서

3(2)
-
134

회의문자 ①



漠

넓을 막

漠자는 '사막'이나 '넓다', '쏟아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漠자는 水(물 수)자와 莫(없을 막)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莫자는 풀숲 사이에 태양이 숨어버렸음을 표현한 글자로 '없다'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없다'라는 뜻을 가진 莫자에 水(물 수)자가 더해진 漠자는 '물(水)이 없다(莫)'라는 뜻이다. 그래서 漠자는 풀 한 포기조차 자랄 수 없는 '사막'을 뜻하고 있다.

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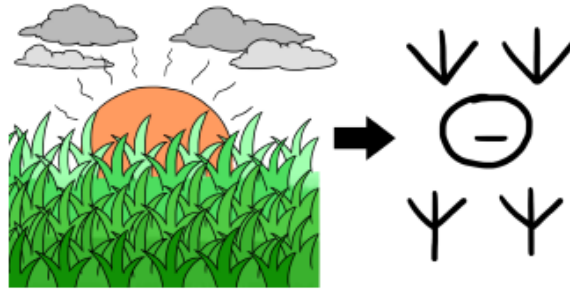
소전

漠

해서

3(2)
-
135

회의문자 ①



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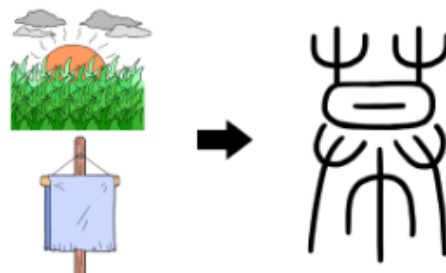
없을 막

莫자는 '없다'나 '저물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𣎵(잡풀 우거질 망)자와 日(해 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갑골문에 나온 莫자를 보면 풀숲 사이로 해가 𣎵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날이 저물었다'라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해서에서는 아래에 있던 𣎵(풀 초)자가 大(큰 대)자로 바뀌게 되어 지금의 莫자가 되었다. 그러니 莫자에 쓰인 大자는 𣎵자가 잘못 바뀐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莫자는 이렇게 날이 저물은 것을 표현한 글자지만 지금은 주로 '없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해가 사라졌다는 뜻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다시 日자를 더한 暮(저물 모)자가 '저물다'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3(2)
-
136

회의문자 ①



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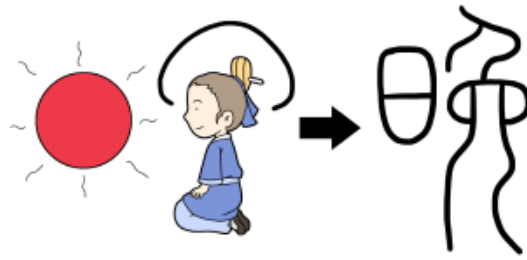
장막 막

幕자는 '장막'이나 '군막'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幕자는 巾(수건 건)자와 莫(없을 막)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莫자는 해가 풀숲 사이에 들어간 모습을 그린 것으로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해가 풀숲에 가려져 있는 것은 날이 저물어 어두워졌음을 뜻한다. 그래서 幕자는 어두워졌음을 뜻하는 莫자에 巾자를 결합해 "천을 덮어 어둡게 가린다."라는 뜻을 표현하게 되었다.

소전	해서

3(2)
-
137

형성문자 ①



晚

늦을 만:

晚자는 '늦다'나 '죄하다', '(해가)저물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晚자는 日(해 일)자와 免(면 할 면)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免자는 '면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면→만'으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晚자는 본래 '(날이)저물다'를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다. 그러니 日자가 의미요소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晚

소전

晚

해서

3(2)
-
138

회의문자 ①



妄

망령될
망:

妄자는 '망령되다', '허망하다', '제멋대로'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妄자는 亡(망할 망)자와 女(여자 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여기서 亡자는 부러진 칼을 그린 것으로 '망했다'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망하다'라는 뜻을 가진 亡자에 女자가 결합한 妄자는 여자가 그릇된 생각이나 행동을 한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부권의식이 강했던 고대 중국에서 女자는 주로 부정적인 뜻으로 쓰였었다. 妄자도 그러한 예 중 하나로 여자들은 제멋대로이며, 거짓이 많고 이성적이지 못하다는 뜻이다.

妄

금문

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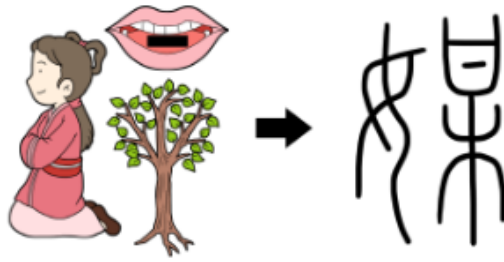
소전

妄

해서

3(2)
-
139

형성문자 ①



媒

중매 매

媒자는 '중매'나 '중개자'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媒자는 女(여자 여)자와 某(아무 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예나 지금이나 중매를 서는 사람은 여자였으니 女자가 의미요소로 쓰인 것임을 알 수 있다. 媒자에 쓰인 某자는 단순히 '모→매'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중매는 양측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말한다. 그래서 媒자는 '중매'나 '중매인'이라는 뜻이 있지만, 이외에도 '구심점'이나 '매개'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다.

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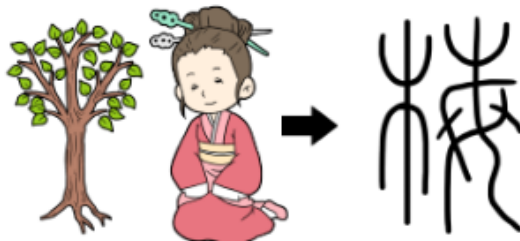
소전

媒

해서

3(2)
-
140

형성문자 ①



梅

매화 매

梅자는 '매화나무'를 뜻하는 글자이다. 梅자는 木(나무 목)자와 每(매양 매)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每자는 '늘'이나 '마다'라는 뜻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 하고 있다. 매화나무는 본래 某(아무 모)자가 먼저 쓰였었다. 하지만 후에 '아무'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자 梅자가 매화나무라는 뜻을 대신하게 되었다. 梅자는 매화나무를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지만 예로부터 매화를 인내나 기품, 품격의 상징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조선 시대에는 사군자(四君子)를 매란국죽(梅蘭菊竹)이라고 했다.

梅

소전

梅

해서